

P61

갈파래(*Ulva lactuca*)의 암세포 저해 및 면역세포 활성화

Dong-Geun Lee, Jin-Ok Lee, Sang-Hyeon Lee, Jong-Myung Ha,
Bae-Jin Ha and Jae-Hwa Lee*

신라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

많은 종류의 해조류는 암세포 저해 및 면역세포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. 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갈파래 (*Ulva lactuca*)의 암세포 저해 및 면역세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한다. 갈파래 메탄을 추출물의 수용액 농도가 140 $\mu\text{g/ml}$ 일 때 인간 백혈암 세포주 U937의 50%가 성장저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($\text{IC}_{50} = 140 \mu\text{g/ml}$), 100 $\mu\text{g/ml}$ 의 농도까지 생쥐 비장세포 (mouse splenocytes)의 성장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어, 암세포 활성을 저해하고 정상세포에는 저해를 보이지 않는 농도구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그리고 10 $\mu\text{g/ml}$ 의 농도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대식세포 (murine RAW 264.7)의 NO 생성량과 비장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갈파래 추출물이 항암 및 면역활성을 보이는 천연추출물로서 추후 연구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었다.